

김장 울력 수행의 맛도 깊어집니다

산사의 겨울채비 - 해인사 김장 담그기 현장



수영장처럼 넓은 대형 간절임통이 만들어져 이곳에서 배추가 소금물에 절여진다.

8000 포기 간절임통 수영장에 온 듯

“스님, 소금 좀 더 뿌려주세요”

“바닷물 농도가 참 좋은데, 예전에 바닷가 사람들은 바닷물에 배추를 절었다고 하잖아요.”

12월 1일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 1994년을 한달 남겨두고 고요하던 산사가 시끌벅적하다.

해인사가 겨울 한철 나기위한 채비에 들어간 것.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해인사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김장 울력에 나섰다.

올해 해인사 김장은 8,000포기. 보통 여염집에서는 상상도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다. 따라서 해인사 김장에는 남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김장 하루 전날 김장을 하게 되는 장경각 보존원 뒤쪽 주차장에는 갈 40개, 도마 30개, 빨강고 노란 바구니 50개, 빨간 고무통 30여개, 고무장갑 200 켤레, 소금 50포가 준비됐다. 대형 간절임 통도 필수. 8,000포기의 배추를 간 절이기 위해서는 일반 고무통으로는 어렵도 없다. 철골과 합판으로 가로 3m 세로 6m 높이 1m의 사각틀 3개를 만들고 물을 채울 수 있도록 큰 비닐 천으로 덧 씌웠다. 꼭 아이를 수영장(?) 모양이다.

200여 대중 동참, 높고 낮음 없이 울력

아침 8시, 극락전 옆과 울원 뒤쪽에 있는 약 1,000여 평의 밭에서 싱싱한 무공해 배추 8,000포기가 3.5톤 트럭 두 대에 나눠 계속 공수돼 왔다.

주지 현승 스님을 비롯해 소임자 스님, 강원, 울원, 선원의 스님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강주 정묵 스님은 밭에서 배추 뽑기에 여념이 없고, 울원장 혜능 스님과 선원장 선각 스님도 확인들 틈에서 갈과 도마를 잡았다. 오늘은 뒷방의 어른 스님들까지도 텃밭에 목도리를 하고 모두 나왔다. 이것이 산사의 울력이다.

선원 스님들은 배추를 다듬고 자르는 일을 맡고, 강원과 울원 스님들은 밭에서 배추를 뽑고, 간절임에 나섰다.

200여명의 전 대중이 마당에 이렇게 마주앉은 일이 또 있을까? 전 대중이 동참하여 겨울철 수행을 위한 먹거리를 장만하는 것에 대한 설레임과 흥분의 기운이 살짝 감돌았다.

누구 하나 일 안한다고 불평하는 이도 없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따지는 이도 없다. 일이지만 스님들에게는 수행인 것이다.

쉬어야 되면 쉬고, 일손이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채워 나갔다.

도마를 앞에 두고 배추를 자르는 스님들의 모습에는 높고 낮음이 없었다.

김장 첫날은 밭에서 배추를 뽑아다가 반을 쪼개서 소금에 절이고, 둘째 날에는 절인 배추를 물에 씻어 물기를 빼 둔다. 셋째 날, 양념에 버무려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는다.

“배추가 많이 짰네. 올해는 배추가 참 잘됐습니다.”

울원 뒤쪽 배추밭에서 배추 세 포기씩을 한꺼번에 나르던 강주 정묵 스님의 한마디에 고랑고랑 앉아있는 배추가 더욱 탐스럽게 보인다.

배추수확에 나선 강원외의 확인 스님들 손이 무척 분주하다. 배추를 나르는 솜씨는 일품. 배추가 밭 위를 경쾌하게 날아다녔다.

“스님 허리가 없어요”, 농담 한마디에 ‘푸근’



이번 김장울력에는 주지·선원장·울원장·강주 등 해인사 전 대중들이 나섰다. 배추를 뽑고 있는 울원장 혜능 스님(왼쪽).

한 스님이 노루가 먹다가 버리고 간 배추 하나를 찍 하니 쪼개어 으적으적 맛을 봤다.

“이렇게 자연 그대로 먹어야 제 맛을 아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밖에서는 모두들 너무 꾸미려고만 하지요.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배추밭에서 스님은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리이야기.

“원래 음식은 한 가지를 잘하면 나머지는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같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할 때 잘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법문이다. 배추밭에서는 진리의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일까. 수행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스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을 파고든다.

“스님 애쓰십니다.” “원 벌말씀을...”

서로를 격려하는 스님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천진난만하다.

한 칸에는 불을 지피고 감자구이에 나섰다. 불속에 넣은 감자가 10여분 만에 노릇노릇하게 익어서 구수한 냄새를 풍긴다. 산사의 김장 울력에 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다.

“스님, 허리 펴 가면서 하세요. 100번 건져 올리 고 허리 한번 펴기, 하하하”

“스님은 허리가 없어요. 워낙 유연해서.”

8000포기의 배추를 소금물에서 건져 올리는 일이다. 계속 허리를 숙이고 일하는 스님에게 넉넉히 건넨 충고 한마디와 농담이 따뜻하다.

수영장 모양을 한 큰 절임통은 세 칸 중 두 칸이

소금물로 가득 채워졌다. 다듬고 반으로 쪼개진 배추들이 소금물에 순응하며 그 속에서 등등 떠다녔다. 여기에 확인 스님 20여명이 어부장화(어부들이 신는 독특한 장화)를 입고 들어갔다. 첫 번째 칸에서는 배추에 붙은 찌꺼기를 제거한다. 두 번째 칸에서는 깨끗이 씻고 배추 구석구석에 간이 알맞게 배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칸으로 옮겨진 배추는 사이사이 소금을 뿌려 가지런히 재어둔다.

어부장화를 입은 스님들은 배추더미 속에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 잠깐의 실수로 배추더미에 넘어지기가 쉽다. 여기저기서 배추더미에 주저 앉고 엎어지는 사태가 속출했다. 그렇지만 김장이 잘 될기를 바라는 모든 스님들의 비참은 간절했다.

마음으로 담근 김치 산사의 귀한 양식

김장 셋째 날인 3일, 이제 절여진 배추에다 속만 채우면 된다. 김치 속을 만들려면 우선 문근하게 찹쌀풀을 쑤야한다. 여기에도 고춧가루와 청각, 통깨, 생강 같은 것, 소금을 함께 섞어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 속은 절김이 사용되지 않은 정갈한 ‘산사 김장 맛’을 느끼게 해준다. 이 과정도 전담과 마찬가지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옛날부터 절김에는 여름에는 상추 따다가 찹쌀에 찌어 먹고, 겨울에는 청국장에서 새끼 삶아 먹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때 겨울철 유일한 반찬이 김치입니다.”

김장을 총괄 지휘하는 원주 분학 스님이 산사의 겨울철 김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했다. 김장 김치는 200여명이 넘는 산중 스님들의 유일한 겨울철 양식이며, 몸과 들어와 수행정진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사찰의 김장은 ‘겨우내 먹거리 준비’에서 나아가 사찰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데서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진다. 승가 전통의 하나인 ‘사찰의 맛’도 공동체 수행을 통해 이어져 나간다고 할 때 김장은 단체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의식’이 되는 것이다.

“총림의 대중생활은 공동체 생활이지요. 공동체 생활에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중규약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울력, 정진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중에서도 김장 담는 것은 울력에 해당하는 것이니 누구나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원장 선각 스님은 총림 공동체 생활에서 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었다.

이렇게 모든 대중스님들의 마음이 담긴 8,000포기의 김장김치는 20여개의 김치독에 담겨 땅속에 저장돼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산중 스님들과 일반 대중들의 귀한 양식이 될 것이다.

해인사=배지선 기사·사진=박재원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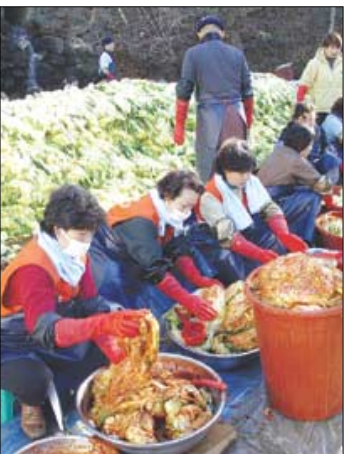
배추와 무 씻기



소금뿌려 절이기



절인 배추 물에 헹구기



마지막날, 절인 배추에 속 넣기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 730-0705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2월 14일 출발

일시	교통	일정
12월 14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국내선편으로 정주로 이동
12월 15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12월 16일	전용버스	소림사, 탐림, 백마사 순례
12월 17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12월 18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에 다 포함

오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왕복사, 탐거사, 용악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심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팀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80만원
6. 달라리라마 티벳 8일 179만원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